

大巡眞理의 目的에 관한 研究(Ⅲ)

- 地上天國建設 · 世界開闢을 中心으로 -

金錫罕*

目 次

I. 序論	2. 正易의 後天開闢論
II. 大巡眞理의 世界開闢의 根據와 前提	IV. 大巡眞理의 世界開闢의 實相과 意義
1. 世界開闢의 根據	1. 世界開闢의 實相
2. 世界開闢의 前提	2. 世界開闢의 意義
III. 新宗教의 後天開闢論	V. 結論
1. 東學의 後天開闢論	

I. 序論

대순진리는 상도가 어겨진 세상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원상생의 도로 후천선경을 세워 세계를 구제한다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대순진리라는 종교적 법리로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신명과 창생을 포함한 전 우주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순의 목적은 도통진경이란 말로 집약이 되며 6개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구체성을 띠고 있다.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 등이 이것인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항목을 다루려고 한다. 세계가 개벽된 사회가 지상천국이며 지상의 낙원이 곧 세계개벽이기 때문에 세계개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를 위해 개혁이란 개념이 사상적 의미를 사용하게 된 19세기 중엽 발생한 한국 신종교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동학의 수운에게서 주창되고 정역의 김일부에 의해 체계화 이론화된 후천개혁론은 당시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으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동학과 정역의 개혁론을 고찰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등장한 대순진리의 세계개혁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타의 종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개혁의 근거와 전제를 간단히 서술하고 이어 세계개혁의 실상을 각 부분별로 살펴 그 의의를 찾아본다.

Ⅱ. 大巡眞理의 世界開闢의 根據와 前提

1. 世界開闢의 根據

세계개혁은 구천상제의 강세와 그에 따른 천지공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순진리는 최고신인 구천상제(九天上帝)가 세계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와 천지공사라는 대역사를 통하여 후천선경을 이룬다고 하는 신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상제강세의 배경이 된 선천세계는 인간과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맺혀 참혹하게 되었으며, 물질문명에 의한 인류의 교만으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난 진멸지경에 처한 상황이었다.¹⁾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남은 제자가 선생을 해하고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는 하극상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 충 효 열이 무도한 '천하개병'으로 나타났고, 근세에 이르러서 자연을 개발의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과학문명의 등장은 인간의 이기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자만과 방종으로 이어져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정신의 타락과 윤리도덕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상도가 어겨져 '도의 근원

1) 대순진리회교무부, 『典經』 공사 1장 3절, 교운 1장 9절,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이 끊어지게' 되어 인간 스스로 자멸의 위기마저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세계의 위기는 마침내 최고신 상제의 강제로 이어지게 되고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단행하게 된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²⁾

천지공사는 천지를 바로 잡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니, 곧 전 우주를 개혁하는 공사이다.³⁾ 이것은 선천세계의 그릇되고 불합리한 모든 이치와 질서를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 새로운 이법과 원리로서 천지를 성숙케 하고 완성시키는 종교적 행위이다.

결국 천지공사는 선천의 현실을 구하기 위한 구제의 역사이며,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다주기 위한 설계의 역사이기도 하다. 천지공사로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이 바로 후천세계이다. 이러한 천지공사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가올 이상적 세계가 현실화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세계개혁의 근거가 된 구천상제의 강제와 천지공사는 다른 종교에서 주창한 개혁이 역의 교체에 따른 우주 운회의 변화 혹은 천지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⁴⁾ 개혁공사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마지막 장인 세계개혁의 실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2) 『典經』 공사 1장 3절

3) 『典經』 예시 5절.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혁함이요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

4) 전경에는 “시속에 말하는 개혁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혁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공사 1장 1절),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내가 천지를 돌려 놓았음을 어찌 알리요”(권지 1장 4절)라고 밝히고 있다.

2. 世界開闢의 前提⁵⁾

1) 無自欺-精神開闢

대순진리의 목적이자 미래관은 도통진경이다. 이는 개인의 도통성취와 사회의 진경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세부 조목 중 하나가 무자기와 정신개벽이다.

무자기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즉, 양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양심을 유지해야 물욕에 의해 발동되는 사심을 제거할 수 있고 인간 본연의 정직한 모습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척이 되어 나타나서 자타에게 원한을 맺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앞길까지도 막게 된다.

무자기는 성실과 진실함이 요구된다. 성(誠)은 기심(欺心)이 없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이며,⁶⁾ 또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되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를 이룰 수 없게 된다.⁷⁾ 그래서 예로부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됨이 없는 진실무망이 지극하면 신과 같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도에 통하고 진경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특히 수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⁸⁾

더욱 주의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自欺自棄),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는 것(心欺神棄)이므로,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늘을 속이는 것은 어디에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되므로⁹⁾ 전경에는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

5) 이 장은 拙稿, 「대순진리의 목적에 관한 연구」(I)(II)(「대순사상논총」 13, 14집, 대순사상학술원, 2001, 2002)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6)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70쪽, 先誠吾心 以誠他心.

7) 「대순지침」 76쪽,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8) 대순지침에는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靜)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라 하였다. 「대순지침」, 38쪽, 39쪽

9) 「대순지침」 42쪽

와 신이 살핀다”(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¹⁰⁾라 하여 암실기심(暗室欺心)을 경계하고 있다.

무자기는 천지공사 이 후의 상황에서 인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해야 하는 행위가 절실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선악이 공존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살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 선으로만 먹고 살게끔 도수로써 확정하였기 때문에 행선거악(行善去惡)은 선택적 차원이 아니라 당위이자 필수가 되었다.¹¹⁾ 또한 마음은 신과 인간의 교류의 장소이니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무망해야만 신인상통, 신인조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무자기는 대순진리 목적과 미래의 인간상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며 정신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신개혁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개혁은 정신과 육체의 개혁으로 나눌 수 있고 이중 정신의 개혁이 주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제신들이 출입 왕래하는 기관인데 선신은 스승으로 삼되 악신은 고쳐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왕래하는 제신을 판별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 그 중에서도 심령이자 정신의 작용처에서 주관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을 개혁하는 것은 바로 정신을 개혁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신개혁은 인간 본심으로 돌아가 진실된 모습을 찾고 더 나아가 신세계에 부흥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함을 최종의 목적으로 한다. 정신개혁은 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사고 사유와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보이는 현상세계에만 매달리지 않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 자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상생의 자세와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인간으로 회복하며 정신과 육체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후천의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자기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개혁은 인간의 정신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변화시켜 인간개조와 지상신선을 실현하게 한다.

10) 『典經』 공사 3장 40절

11) 『典經』 교법 2장 55절, 지난 선천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2)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대순진리의 세부적인 목적 중 또 하나가 지상신선실현과 인간개조이다. 즉 미래의 개조된 인간상을 지상신선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상신선을 알아보기 전에 대순진리의 신인관계인 신인의도(神人依導)¹²⁾를 살펴본다.

천지의 일과 만물의 이치는 모두 음양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천지와 신인은 음양으로써 변화와 조화를 이룬다. 신과 인간이 서로 의탁하고 이끌어 주는 신인의도는 종래의 신 중심 또는 인간 중심도 아닌 음양의 관계처럼 떨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한 것이며, 화합하고 상통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신인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신과 인간은 마음을 통하여 교섭한다.¹³⁾ 이는 인간의 모든 주체적 행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며 인간행위의 결과는 신적 작용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은 마음에 작용하는 신적 교류를 감지하고 가치판단을 통해 올바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주체적 노력이 요구된다.¹⁴⁾ 인간존재의 위상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때문에 신에 가치의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자각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행위는 인간의 몫이 된다.

그 몫은 곧 수도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순진리의 이상적, 미래적 모습인 신인조화(神人調化)를 이룰 수 있다. 신인조화는 대순진리의 종지중 하나이며 음양합덕의 대법칙이 신인관계에 적용되어 나타난 원리이자 목적이다. 신과 인간이 조화(調和)와 조화(造化)된 상태가 신인조화이며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개조된 지상신선이며 도통군자라 할 수 있다. 지상신선은 신도 아니고 현재의 인간의 모습도 아닌 후천의 인간상이다.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력적인 방법과 타력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간의 심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수양을 통해 심신이 변화, 개조되는 자력적인 방법과 신명의 도움과 합일 등의 타력적인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2) 『典經』 교운 2장 42절 陰陽經,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13) 『典經』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14)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123쪽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은 본연의 천인, 신인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신인의도의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상통, 조화의 결과이다. 지상신선이 살아가는 선경세계는 인간과 신 모두의 성공이며,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된 인존시대가 실현된 세상이다. 이처럼 인간개벽 곧,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는 지상천국, 세계개벽의 전제가 된다.

Ⅲ. 新宗教의 後天開闢論

개벽이란 말이 사상(Ideology)으로 전개되기는 1860년대 우리나라에서 동학이 출현하면서이다. 개벽에 대한 사상화 체계화는 동학의 교조 최제우나 같은 연배인 김항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운과 일부 등은 19세기 후반에 ‘개벽’이란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의 시급함을 인식하였고, 그 근거를 학문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당시 한말의 혼란 속에서 이 개벽은 민중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고,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서는 후천개벽의 사상이 깊은 신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점차 민중운동의 이념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수운이나 일부는 당시 우리 민족의 비운을 스스로 초극(超克)하는 길을 찾았던 것이며, 나아가 이들은 세계사의 전환을 예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후천개벽의 근거를 우주 법칙으로 찾았던 것이다.¹⁵⁾

동학과 정역의 신종교에서 사용하는 후천개벽의 의미는 첫째, 선후천의 교역(交易)에 따른 새로운 운수의 열림 즉, 운도론적 의미와 둘째, 필연적인 교역의 운수를 당하여 이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합일해 가려는 인간의 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⁶⁾ 이하에서 동학과 정역이 표방하고 있는 후천개벽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東學의 後天開闢論

최제우의 역사관은 시운(時運)-시세의 운수-의 역사감각을 가지고 역에 기

15)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下), 동명사, 1994, 246쪽

16) 김정관, 「원불교 개벽사상의 연구」, 「정신개벽」 5, 신통교학회, 1987, 12-13쪽

초한 순환사관을 바탕으로 깔면서도 개혁(開闢)이란 변혁에 중점을 둔 혁명사상이다. 그의 혁명사상은 적극적으로 왕조의 교체를 명시하면서도 천명이 갈아드는 혁명을 명시적으로 제창하지는 않았으나 시문에는 성쇠가 있다는 변화에의 희망을 가지고 왕조의 쇠운이 지진(至盡)하여 개혁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한 변혁 중에서도 일대변혁이 그의 이른바 후천개혁이다. 그의 역사관에서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은 1860년 득도이며, 이로써 후천개혁의 분기점이 됐다.¹⁷⁾

최제우의 후천개혁사상은 시문관과 천명사상, 무위이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후천개혁의 도래와 그 시기를 시문관으로 예언했고, 개혁의 당위성을 유교의 천명사상에서 찾았으며, 후천개혁 실현의 가능성을 무위이화의 진화사상으로 합리화하였다. 시문에 의한 그의 사상은 종말관과 관계가 있다.¹⁸⁾ 그는 인류 역사시대를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유사 이래 현재까지를 선천으로, 현재 이후 지상천국의 신세계를 후천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시 선천을 원시시대, 성현이 치세하던 태평성대, '불순천리(不順天理) 불고천명(不顧天命)'의 말세로 세분화하였다.¹⁹⁾ 즉 당시 '불순천리 불고천명'의 시기를 선천의 끝으로 보아 그 징후를 예시하여 보국안민의 우국충정을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말세적 쇠운이 가득한 조선사회를 후천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시문에 따라 무극대도의 동학을 창시했다는 것을 말하였다.²⁰⁾

시문이 돌렸던가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창건하니 이도 역시 시문이라²¹⁾
수운은 후천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 즉 선천(하원갑)의 상황에서 후천개혁(상원갑) 사회의 도래를 예언하였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혁 아닐런가
태평성대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17) 신일철, 「최수운의 역사의식」, 『한국사상』 12 - 최수운 연구, 한국사상연구회, 1974, 28쪽

18) 윤이흠, 「동학운동의 개혁사상」(上), 『신인간』 469, 신인간사, 1988, 32쪽 참조.

19) 『東經大全』 「布德文」,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券而以 定天道常然…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之所向矣…

20)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 동학 천도교편 -, 혜안, 1996, 55쪽

21) 『龍潭遺詞』 「勸學歌」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잔해서 억조창생 많은 백성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에 불 것이니
 이 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²²⁾

이렇게 후천개벽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의 사회로서 만고 없는 무극대도가 펼쳐질 것임을 말 한 것이다.

한편, 그의 사회 비판의 기준은 유교적 순환사관과 맹자의 천명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맹자가 전 인류의 역사를 왕도에 의한 치세, 난세의 반복 과정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19세기 중엽을 당시를 불교천명 불순천리의 난세로 간주하고, 천리와 천명에의 순응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각자위심(各自爲心)의 민심 이탈과 방향 상실의 무규범 상태에까지 이른 조선왕조 사회의 혼란상을 도덕적 타락에 기인한 사회질병으로 진단하여 천명이 이미 왕조를 떠난 것으로 단정하고 동학에 의하여 후천개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합리화하였다.²³⁾

결국 수운은 도덕성립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전제로 후천개벽의 궁극적 이상을 인간개조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기성질서를 고정 불변한 것으로 믿는 당시의 사회적 풍토에서는 후천개벽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동학의 현실주의적 개혁을 근거로 무위이화의 영구진화사상을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무위이화는 천도의 항구적 향상성을 뜻하는 것으로 진화와 선을 추구하며 또한, 영구히 진행하며 부단히 이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천주의 조화이므로 천인여일(天人如一)에 의해서 인간사회의 후천개벽 또한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끌었다. 이 점에서 동학의 종교적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²⁴⁾

수운의 후천개벽은 자신의 이상세계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세에서의 지상 선경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이돈화는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22)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23)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팔도강산 다 밟아서 인심풍속 살펴보니 무가 내라 할 길 없네 우습다 세상 사람 不顧天命 아닐런가.

24)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82, 148-161 참조.

첫째, 지상천국에서는 누구나 장생불사한다. 장생불사는 육신의 장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혼의 불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의 모든 생활이 사회적으로 유기장생(有機長生)하는 것과, 즉 사회라고 하는 대아(大我)가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상천국의 생활은 덕치생활을 원리로 한다. 권력이 없으면 계급의 대립이나 귀천의 차별 등이 없듯이 인간이 상부상조의 덕성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셋째, 의식주의 부자유와 질병, 재앙과 같은 자연적 압박을 극복한 상태에서의 삶을 의미한다.²⁵⁾

이와 같은 수운의 후천개벽론은 다분히 예언적이고 막연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운이 제시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은 당시의 조선사회의 기층민중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였다고 평가된다.²⁶⁾ 수운의 개혁사상은 김일부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보완된 개벽론과 더불어 이 후 신종교 개벽론의 기저로 자리 잡게 된다.

2. 正易의 後天開闢論

수운 이후 역사 개조의 논리로써 후천세계의 도래를 예언한 인물은 김항이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진리를 ‘정역’에 담아서 이를 민중에게 보급시켰다. 그는 정역팔괘도를 새롭게 그리고 천지도수의 변할 때가 온 것을 역의 원리로써 학문적으로 따져 밝혔다. 정역을 설명함에 있어 복희괘도와 문왕괘도, 하도와 낙서를 비교함으로써 정역 후천의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을 밝혔다. 이것은 종래 유학자들이 단지 존봉의 해석만을 일삼던 경향에 견주어 볼 때 가히 파격적인 일이었다.²⁷⁾

일부는 정역에서 “天政開子 地政關丑”²⁸⁾이라 함으로써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론적 운세관에 입각하여 후천개벽의 논리를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논리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주역이 선천시대의 역인데 반해 정역은 후천시대

25)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총부, 1968, 106쪽

26) 박명규, 「동학사상의 종교적 전승과 사회운동」,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7), 문학과 지성사, 1987, 54쪽

27) 한국철학회 편, 앞의 책, 257쪽

28) 『正易』 「十一言」

의 역이다. 주역의 천지운행 도수는 1년이 365 1/4이고 윤역(閏易)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천지의 회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운행이 바르지 못하여 극한과 극서의 현상이 나타난다. 정역은 이러한 주역의 부정확성을 극복하여 일년이 360일, 한달이 30일로 바뀌어 윤(閏)이 없어지고 정역(正曆)이 되기 때문에 천지가 바른 도수에 의해 바르게 운행한다. 다시 말해서 태양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똑바로 서고 자전과 공전의 궤도에 변화가 생기며 황도와 적도가 일치함으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일회전하는 데에 360일이 걸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주야의 장단이나 한서의 차이가 없어지고 억음존양(抑陰尊陽)의 불평등이 사라져서 조양율음(調陽律陰)의 화기가 충만한 이상세계, 이른바 유리세계(琉璃世界)가 펼쳐진다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이 일부의 정역사상은 수운이 동화에서 막연하게 언급한 후천운수의 개벽원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³⁰⁾

정역의 후천개벽사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³¹⁾ 첫째는 일월개벽사상(日月開關思想)이다. 역학에서도 대계 과거를 선천, 현재를 후천으로 구분하고 복희괘와 하도를 선천으로 문왕괘와 낙서를 후천이라 한다. 그러나 정역에서는 현재의 세계를 선천으로 미래의 세계를 후천으로 보고, 문왕괘를 선천으로 정역팔괘를 후천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정역은 “先天 體方用圓 二十七朔而閏 后天 體圓用方 三百六旬而正 原天 无量”³²⁾이라고 언급하듯이 현행의 선천윤역이 미래의 360도 후천정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후천 개념의 역수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우주의 운행질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월개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운행 특히, 일월운행이 후천시대에 이르러 변화됨에 따라 종래의 역(曆)의 적용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閏變爲正’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윤역이 미래에는 360일의 정역(正曆)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부는 원역(原曆) 즉, 윤역도수와 정역도수를 포함한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29) 이정호, 「정역과 일부」, 아세아문화사, 1985, 328-330쪽

30) 이강호, 「한국신흥종교의 개관」, 「대계 최일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류림출판사, 1975, 170쪽

31) 류남상, 「정역사상의 연구」, 「한국종교」 1,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71, 15-21쪽

32) 「正易」 「先后天正閏度數」

근본역수를 375도로 상정하고, 후천개벽에 의하여 15도(일)가 탈락함으로써 1년은 360일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帝堯之曆 三百有六旬有六日

帝舜之曆 三百六十五度 四分度之一

一夫之曆 三百七十五度 十五度尊空 正吾夫子之曆 當曆三百六十日³³⁾

일월개벽사상은 다른 개벽사상이 주로 인간사회의 전면적 변혁에만 언급하는데 대하여, 우주의 운행 질서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정역에서는 선후천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천세계가 최후적 완성된 세계라 보고 있다.

둘째는 신명개벽사상(神明開闢思想)이다. 정역에서는 외적인 일월개벽과 아울러 인간 내적인 신명개벽을 제시하고 있다. 신명(神明)이란 인간의 내적 정신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주적 일월개벽은 인간의 주체적 정신혁명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이다. 김항에 의하면 역수원리와 정신원리는 우주와 인생의 측면만 다를 뿐 원리는 일치한다. 선천시대에서는 오직 성인만이 이 원리를 체득하여 후천적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 신명개벽의 원리는 패화위륜(悖化爲倫)으로 요약된다. 선천시대는 천도에서 음양이 어긋남에 따라 인류도 패륜을 걸었으나 후천시대에서는 정륜(正倫)의 시대가 열리며, 또 당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역에서는 이것을 단적으로 '비왕태래(否往泰來)'³⁴⁾라고 하여 천도가 정역으로 변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천 비운(否運)이 가고 후천 태운(泰運)이 오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비와 태란 주역의 비괘와 태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천지비괘(天地否卦)는 '天地不變而萬物不通'하여 결국 군자의 도가 쇠하고 소인의 도가 성하는 상을 지녔다. 이에 비하여 지천태괘(地天泰卦)는 '天地交而萬物通也'의 결과로 군자의 도가 크고 소인의 도가 쇠한다고 하였다. 즉 후천시대에는 올바른 윤리가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다.³⁵⁾

한편, 주역과 정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역이 괘상논리(卦象論理)에 의

33) 『正易』 「金火五頌」

34) 『正易』 「化翁親視監化事」

35) 류병덕 편저, 『한국 민중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38-39쪽

해 공간관과 우주관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역은 기본적으로 역수논리(曆數論理)에 의해 시간관과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에는 근본적으로 역수논리와 패상논리의 두가지 논리³⁶⁾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떠한 논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판이하다. 왜냐하면 주역은 “易은 象이다”(周易 繫辭上)라고 한데 비해, 정역은 “易은 曆이다”(正易 大易序)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각각의 논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원적이지 아니며 어느 쪽을 강조하는데 달린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역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관 및 역사관을 수정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정역이라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³⁷⁾

정역에 의한 후천개벽사상은 수운보다 더욱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입장에서 개벽이 도래하는 원리를 논리화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질서를 논리적으로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즉 근대 한국의 종교적 우주론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³⁸⁾

김일부의 정역이 한국민족종교의 사상사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역의 도수를 개정할 수 있듯이, 후천의 이상사회에서는 한국 민족이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수운과는 달리 매우 정교한 역학의 논리를 근거로 한국 민족의 장래에 대한 긍지를 세워주었던 것이다. 또 천지운행의 도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김일부가 그 이후의 종교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이 후에 천지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한다.³⁹⁾

36) 류남상, 신동호, 「주체적 민족사관의 체계화를 위한 한국역학적 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3권, 1호, 1974, 「정역사상연구선집」, 평화당, 1997, 149-150쪽에서 재인용.

37) 강돈구, 「정역의 종교사적 이해」, 「한국종교의 이해」, 집문당, 1985, 317쪽

38)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41쪽

3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3, 집문당, 1991, 99쪽

IV. 大巡眞理의 世界開闢의 實相과 意義

1. 世界開闢의 實相⁴⁰⁾

대순진리의 세계개벽은 동화이나 정역의 후천개벽론과 차이가 있다. 그것은 역의 교체에 따른 우주 운회의 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천지공사, 개벽공사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개벽의 주재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강세한 구천상제가 자신의 의지와 권능으로써 혼란하고 모순된 세상을 뜬어 고치고 바로 잡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경에 개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⁴¹⁾

여기에서 개벽은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것’으로 성숙과 완성을 뜻한다. 이는 성장염장의 자연적 변화 과정상에서 성숙되고 갈무리되는 시기에 맞게 모든 만물이 성공하는 것이다. 개벽은 가을바람으로 상징화하여 그 의미를 더욱 밝혀주고 있는데 참된 자는 창성하여 뜻을 이루고 거짓된 자는 멸망하는 양극적인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

결국 개벽을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는 지나온 성장과정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알차게 가꾸어 나갔느냐는 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 개벽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이제 전경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개

40) 이 장은 拙稿,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연구」(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9) ‘후천선경의 제실상’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41) 「典經」 예시 30절, 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행록 5장 33절).

42)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94-95쪽

벽의 실상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人間像으로서의 地上神仙

개벽된 세계의 인간상은 앞서 정신개벽, 지상신선등의 목적에서 밝힌바 있어 여기에서는 간략히 서술한다. 지상신선은 신과 인간이 조화된 인간상이며, 인존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실현된 모습을 말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⁴³⁾

이러한 선언은 앞으로 인존시대가 펼쳐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천과 지를 높이던 선천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시운(時運)이 변하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천존과 지존에서는 천지의 신을 높여 숭배하였다면 인존시대는 신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는 의미이다.

인존시대의 인간상을 표시하는 말로는 신선, 도통군자 등이 있다. 신선은⁴⁴⁾ 신격을 부여받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도통군자는 도를 완벽히 체득하여 통달한 즉, 진리와 하나가 된 인격체를 의미한다. 신과 인간의 상합과 조화의 결과는 도통으로 나타나며 그 모습은 지상신선이다.

신선은 도교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군자를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의 신선은 양기를 통한 불로장생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지만,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은 인간이 심적으로 하느님과 통하고 신명과 합일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수양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고 또, 외적으로 육체를 탈바꿈시킨 개조된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

인간의 신선화 즉 지상신선은 미래의 인간이 기존의 신이나 인간과도 그 격이 다른 창조적 존재이다. 신선은 쇠병사장의 한계를 극복하여⁴⁵⁾ 불로장생하게 되며, 진리를 체득하여 내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양심을 회복하고 인

43) 『典經』 교법 2장 56절

44)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행록 5장 25절)

45) 선천에서는 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不埋白骨而葬之니라.(행록 1장 37절)

격완성을 이룬 점에서 도통군자로 표현된다.⁴⁶⁾ 결국 신선 혹은 도덕군자는 정신적 육체적 개혁이 이루어진 즉, 도성덕립을 체현하고 인간개조된 모습이다.

이처럼 지상신선은 인간이 신명과 합일되어 완성된 모습으로 진리를 체득하고 인격완성을 이룬 도덕적인 새로운 인간상이며, 새 시대에 맞게 우주의 중심 존재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2) 法理에 입각한 政治

후천의 정치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이해해야 한다. 원시반본은 ‘시작으로 돌이키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다. 인생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든 현상을 근원적인 최초의 상태로 회귀시키려 하는 발상이 곧 원시반본이다.⁴⁷⁾ 여기에는 인류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하고 그것을 현세에 적용시켜 신천지를 건설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먼저 근본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⁴⁸⁾

위 구절은 개혁과 원시반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개

46) 공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교운 1장 34절)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웅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예시 45절)

47) 김형효, 「원시반본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 『중산사상연구』 5, 중산사상연구회, 태광문화사, 1979, 20-33쪽. 이 논문에서는 중산의 사상이 한국사에서 그 뿌리가 깊고 오랜 저항의 이념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여는 창조적 이념에 그 종교사상적 원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48) 『典經』 교법 3장 26절, 한편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죽으리라.”라고 밝히고 있다.(교법 3장 42절)

벽의 방향과 목적, 후천의 정치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후천세계는 성응을 겸한 인물이 정치와 교화를 통제하고 관장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순을 비유하여 이상적인 사회의 인물로 보며 그러한 도(道)가 새롭게 나올 것이라 밝혔다.⁴⁹⁾ 후천은 상고시대처럼 성인이 정치와 교화를 담당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사회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요순과 같은 성인군자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초세간적이거나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도덕사회 구현을 의도한 것이다.

또 다른 정치상에 대해 전경은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예시 81)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지혜가 밝아져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며 도덕군자는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려 간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기, 질투가 팽배하는 상극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이상이 실현된 사회이다.

3) 풍요와 평등이 실현된 社會 · 經濟

천지공사에는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여 원한을 맺게 한 제반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철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등, 남녀의 불평등 등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미래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음양도수의 조정을 통한 남녀간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게 하였다. 건곤은 일양일음의 원리지만 지금까지 억음존양의 폐단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로 인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 그래서 음양을 조정하여 정음정양으로 바로 잡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⁵⁰⁾ 이러한 바탕에서 남녀평등과 신분계급의 철폐 등의 사회변혁에 대한 공사를 집

49)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교운 1장 46절), 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 蒼生有億兆 億兆有顯戴 顯戴有唐堯 基礎棟樑終(교운 1장 66절 현무경 16면)

50) 『典經』 공사 2장 16절

행하였다.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⁵¹⁾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에 낮추시옵소서」 하고 칭하나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⁵²⁾

특히 해원시대를 맞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아서 망하는 기운이 따라들어 오히려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양반의 인습을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릴 거라고 당부하였다.(교법1-9) 그래서 촌양반과 아전으로 대표되는 상극적 관계를 화해시켜 천하를 다 해원하게 하였다.(공사1-25)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던 신분과 성적 차별이 철폐되어 남녀와 적서, 반상의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상태를 이루게 하였다. 결국 인간은 타고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닻은 바인 정신적 경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욕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⁵³⁾

여기에서 두 계급이란 창생과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천에서의 계급은 선천의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조화의 관계이다. 새 세계에 등장하는 계급은 신분질서가 아닌 정신질서(精神秩序)로 구분된다.⁵⁴⁾

사람들은 각기 마음을 닻은 바에 따라 복록과 수명이⁵⁵⁾ 주어지게 되므로

51) 『典經』 교법 1장 68절

52) 『典經』 교법 1장 10절

53) 『典經』 교법 2장 58절

54) 김형효, 앞의 논문, 39쪽

55)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

성 경 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⁵⁶⁾ 선천에서처럼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도와 공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식욕 문제는 평등하게 하여 이에 따른 원한을 없게 하였다. 그래서 후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사회의 토대 부분이 해결된 사회이며, 경제의 핵심인 '돈'이 과거와는 다르게 선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⁵⁷⁾

또한,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극치를 이룬 세계이다.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는 본디 천국의 모형을 본 뜬 것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에게 편의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게 하였다.(공사1-35)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꽃이 핀 낙원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후천은 동서양이 통일되고 언어도 통일된 사회이다.⁵⁸⁾ 이는 세계 일가(世界一家)의 사회상으로 동서양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세계 언어도 통일된다고 보는 것이다.⁵⁹⁾ 이처럼 세계개벽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전 세계가 통일된 화평의 사회이다.

4) 神道에 입각한 倫理道德

선천은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져 삼계가 혼란하여 진멸지경에 이른 세상이라면 선경세계는 윤리도덕이 바로 잡힌 사회이다. 따라서 후천세계의 건설은 먼저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천지도수의 정리와 신명의 조화, 천지만물의 해원은 결국 상생의 도를 세우는 것으로 집약되며 그래야만 후천의 선경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다

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죽이 떨어지면 죽나니라.(교법 1장 16절)

56)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교운 1장 30절)

57) 「典經」 교법 1장 63절

58)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鷄龍山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 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 고 다시 대답하셨도다.(교법 3장 40절)

59) 천지에 수기(水氣)가 들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나니 수기가 들 때에 와직판 소리가 나리라.(예시 51절)

시 말하면 천도와 인도가 회복되어야만 선경의 세상이 도래한다고 본다.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⁶⁰⁾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든 허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법(眞法)이 출현하게 되고,⁶¹⁾ 강륜이 세워져 임금과 신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다. 병세문(病勢文)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천하가 병이든 원인이 무도(無道)한 사회였기 때문에(행록5-38) 그래서 예법과 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의 근간으로 만들어 도덕문명이 충만하게 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도(神道)로써 일을 다스린다는 점이다. 신도로써 조화해야 도수가 굳건히 정해지고 인사도 조화가 되기 때문이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⁶²⁾

신도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도와 인도를 총괄하는 근원적인 것이며 모든 일을 다스려 나가는 원리로서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경에 “나는 생장염장의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니라”(교법3-27)라고 언급한 것처럼, 신도는 본래 신명과 인간, 천 지 인 삼계의 바탕인 된 것이며, 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교에서 주로 말하는 무위이화가 무위자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면, 대순진리의 무위이화는 모든 만물이 자연에서 생성, 변화한다는 면에서 상통하지만 그 핵심이 구천상제의 조화(造化)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위이화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주를 지배자양(支配滋養)하는 원리이자

60) 『典經』 교법 3장 34절

61) 『典經』 교법 1장 18절, 교법 3장 37절

62) 『典經』 예시 73절

섭리라 하겠다.

이처럼 후천은 윤리도덕이 바로 선 사회일 뿐만 아니라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다시 잡혀 모든 일이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5) 統一된 文明과 宗教

후천문화는 선천의 문화의 정수를 통일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통일성과 보편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선천에서처럼 각 문화 간에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요소로 인한 갈등이나 대립을 소멸시키고 각 국가와 민족,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문명과 종교가 주어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⁶³⁾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⁶⁴⁾

전경에 의하면, 도통신과 문명신은 진묵대사와 이마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진묵은 천상에 올라가 온갖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에게 죽은 후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계발에 역사하게 되었으며,^(권지2-37) 이마두는 동양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꿈이 좌절되자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고 제각기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왕래케 하고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다고 한다.^(교운1-9)

현세에 드러나 있는 문명은 그 본이 천상으로부터 유래하였고 그것을 담당하는 도통신이나 문명신이 존재하며, 서양의 과학문명이 발전하는 데는

63) 「典經」 교법 3장 23절

64) 「典經」 예시 12절. 이와 더불어 선 불유의 역할을 밝혀주고 있다.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旺 兜率虛無寂滅以詔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4면)

진묵과 이마두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밝혀주고 있다.

동서양이 통일된 후천에서는 종교 역시 통일된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 판이 넓은 사회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도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천의 유불선 서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종장공사(宗長公事)이다.⁶⁵⁾

종장공사의 특징은 유, 불, 선, 서도의 교조를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을 종장으로 세운데 있다. 이는 후천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최수운과 진묵, 주희와 이마두는 타종교에 대해 일정한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자기 사상 속에서 융화시키려 한 인물이다. 특히 수운은 동학에서 유불선 삼교의 통일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⁶⁶⁾

시대가 변하여 동서양이 교류하고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어느 한 법으로서만 혼란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후천세계를 이루기 위해 모든 법을 합하고 각 문화의 바탕이 된 종교의 종장을 교체하여 문명과 종교를 통일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개벽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후천선경은 사해일가의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통일된 세상이자 윤리도덕이 바로 잡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체득하게 된 세계이며, 인간에 신격이 부여되어 자연과 사회의 주체가 된 지상신선의 세상이라 하겠다.

2. 世界開闢의 意義

후천은 세계가 개벽된 사회이자 지상천국의 낙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65)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 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교운 1장 65절)

66) 『典經』 예시 73절

미래의 모습을 전경은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⁶⁷⁾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⁶⁸⁾

인간 및 사회, 자연 등이 완전하게 구비된 세계가 지상선경이요 천국이다. 이와 같은 세계개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통일된 세상이다. 선천의 갈라지고 찢겨진 현실에서는 세상을 구제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서양을 통일하여 천하가 한 집안이 되도록 하고 전쟁과 싸움이 없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생의 시대가 되게 한 것이다. 먼저 천 지 인 삼계가 상통하게 하여 천지가 상생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기를 통일시켜 인류의 사상적인 시비와 갈등을 없애게 하였다. 이어 각 민족의 문화의 정수를 거두어 통일케 하는 등 인류가 사상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동시에 발양시켜 인간의 본성 회복과 아울러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게 하였다.

둘째, 도덕이 완전 구현된 평화와 평등의 세계이다. 선천이 혼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도덕이 문란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로써 윤리도덕을 바로 잡게 하였다. 또한 사람들도 진리를 체험하여 인격완성을 이루게 되므로 지도자는 조화로서 백성들을 법리에 맞게 다스리며 창생은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밝아진 도덕공동체 사회이다. 강륜이 바로 서고 도덕이 전면적으로 펼쳐진 세상이 세계개혁이다.

67) 「典經」 예시 80절

68) 「典經」 예시 81절

셋째,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된 세계이다. 이는 인간이 우주와 사회의 중심적 존재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간은 하늘과 땅의 제반환경에 순종하거나 대처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인존은 그 가치에 신격(神格)이 부여되어 세계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신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후천의 인간상인 신선은 인간과 신의 창조적인 합일로 이뤄진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이처럼 후천은 바로 지상낙원(地上樂園)이자 선경세상(仙境世上)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 생활의 기본전제인 의 식 주를 해결하게 했고 생노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병장생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자연의 재해인 수화풍(水火風)을 없애 외적 환경까지도 최적의 상태로 만든 것이다.

대순진리의 세계개벽은 곧 지상선경이자 지상천국이다. 이는 단순히 평화롭고 평등한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와 세계의 주체가 되며 진리가 전 우주에 펼쳐진 도통진경이라 하겠다.

V. 結 論

대순진리의 목적은 도통진경이다. 도통진경은 정신이 개벽되고 인간이 개조된 지상선경이며 이것이 실현된 사회가 바로 세계개벽이다. 무자기 정신개벽이 주로 인성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인간개조는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탈바꿈까지 이룬 상태 곧 인간의 신선화이다. 지상천국이 건설된 세상이 세계개벽으로 이는 인간, 사회와 천지를 포괄한다. 그래서 세계개벽이란 개념에는 인간개조와 사회변혁 그리고 천지개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세계개벽은 인간개벽(정신개벽, 인간개조), 사회개벽, 천지개벽을 모두 의미한다.

인간개벽은 후천개벽의 첫 단계이자 출발점이고 사회개벽은 사상, 문화, 사회제도 및 관습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변혁이며 천지개벽은 지상낙원이자 신천지로의 이행으로 개벽의 완성을 말한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를 통해 인간 본성을 다시 찾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갇든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혁하여 양심으로 돌아가야만 사회변혁과 천지개벽도 기대되는 것이다.

결국 지상천국건설은 사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개혁은 개인의 의식개혁과 인간성 회복에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의 상도가 선행되어야만 지상선경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대순진리 세계개혁의 근거는 구천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써 예견되는 후천세계의 실상은 지상신선의 인간상, 법리에 입각한 정치, 화평하고 풍요로운 사회와 경제, 신도에 입각한 윤리도덕의 확립, 통일된 문명과 종교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혜가 밝혀져 번뇌가 끊기고 나아가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된 인존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상제의 조화이자 법리인 무위이화로 다스려지고 천하가 한 집안처럼 살아가며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자연의 재해가 소멸된 지상선경이다. 이러한 모습을 전경은 “道術運通九萬里 文明開化三千國”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 즉 수도 공부를 통한 내면적 정신적 각성과 천지공정에 참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세계가 다가 올 것이다.

【참고문헌】

『典經』 『대순지침』

『東經大全』 『龍潭遺詞』

『正易』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下), 동명사, 1994.

한국사상사연구회, 『한국사상』 12-최수운연구, 1974.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 동학 천도교편 -, 혜안, 1996.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82.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총부, 1968.

이정호, 『정역과 일부』, 아세아문화사, 1985.

류병덕 편저, 『한국 민중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정역사상연구선집』, 평화당, 1997.

강돈구 외, 『한국종교의 이해』, 집문당, 1985.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3, 집문당, 1991.

김정관, 「원불교 개혁사상의 연구」, 『정신개혁』 5, 신릉교학회, 1987.

윤이흠, 「동학운동의 개혁사상」 (上), 『신인간』 469, 신인간사, 1988.

박명규, 「동학사상의 종교적 전승과 사회운동」,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7.

이강호, 「한국신흥종교의 개관」, 『대계 최일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류림출판사, 1975.

류남상, 「정역사상의 연구」, 『한국종교』 1,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71.

김형효, 「원시반본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 『증산사상연구』 5, 증산사상연구회, 1979.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석한,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대순진리의 목적에 관한 연구」(Ⅰ)(Ⅱ), 『대순사상논총』 13, 14
집, 대순사상학술원, 2001, 2002.